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 위임식 거행



서울서지방회 푸른나무교회는 지난 11월 16일(주일) 오후 4시, '제2대 담임 이성호 목사 위임식'을 거행했다. 순환모 치리목사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김현기 목사의 기도, 부서기 강필석 목사의 성경봉독(수 1:9)에 이어 지방회장 이상복 목사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던 후 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지방회장 이상복 목사의 집례로 시작되었으며, 양현감찰회 서기 강병문 목사의 기도 후, 이성호 목사를 푸른나무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공포했다. 3부 축하의 시간에는 전 총회장 송덕준 원로목사(독일교회)와 전 총회장 이상분 목사가 격려사를, 양현감찰장 윤상

희 목사가 축사와 전 지방회장 이종이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이어 위임받은 이성호 목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사를 전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푸른나무교회는 2012년 3월 17일 제1대 김형민 목사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으며, 김형민 목사는 2025년 7월 31일 5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 이성호 목사는 성결대 신학부와 성결신학대학원(목회학석사)을 졸업하고,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D.Min)를 수료했다. 효민성결교회, Dallas연합교회, 새로운제자교회, 신림제일교회, 독일교회에서 부목사를 사역한 후, 푸른나무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받았다. 서울서지방회주재기자 김현기 목사

오산성결교회, 안수집사·권사 취임 및 공로장로·권사 추대 예배



경기남지방 오산성결교회(진상만 목사)는 11월 9일 창립 35주년을 맞아 안수집사·권사 취임 및 공로장로·권사 추대 예배를 드렸다. 1부 감사예배는 차주영 목사(광영교회)의 사회로 황윤길 목사(좋은이웃교회)의 기도, 박주덕 목사(고덕아름다운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송용현 목사(지방회장·안성중앙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2부 공로장로 및 권사추대 순서에서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한 시무장로를 공로장로로 추대하고, 시무권사들을 공로권사 추대식이 이어졌다. 3부 임직식에서는 6명의 안수집사와

7명의 권사가 새롭게 임직했으며, 오산교회는 이번 임직식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과 교회를 향해 더욱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혔다. 모든 순서는 축복 속에 은혜롭게 마무리되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공로장로: 오관진 ▲공로권사: 손정순 이순홍 임순자 최희열 ▲안수집사: 김동길 김일석 김종현 오광호 이기섭 최윤영 ▲권사: 김동희 김순애 박승희 이경순 이영자 이연남 한은경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



구로중앙교회, 장로 및 권사·안수집사 임직식 거행

서울중부지방회 구로중앙교회(윤형석 목사)는 10월 19일 오후 2시 임직식을 거행했다. 이날 예식을 통해 김종수 안수집사는 장로로, 강정희 집사는 권사로, 김종민 집사는 안수집사로 각각 임직을 받았다. 지방회 부회장 이규명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지방회 서기 박종대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이창원 목사의 '거룩한 부딪침' (요 19:25-27)이란 제목의 설교가 있었다. 이 목사는 설교를 통해 "직분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한 유익한 길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김종수 장로, 강정희 권사, 김종민 안수집사가 윤형석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종민 원로목사의 축사와 성결대학교 정성문 교수의 축사, 윤기순 원로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식을 은혜롭게 마쳤다. 서울중부지방회주재기자 박종대 목사

공항리교회, 한덕수 공로목사 추대식 거행



호남전도지방회 공항리교회는 11월 12일 오전 11시, 한덕수 목사를 공로목사로 추대하는 추대식을 거행했다. 이날 예배는 김성욱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성윤모 목사의 성경봉독(딤후 4장 7-8절)에 이어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홍 총회장은 설교를 통해 한덕수 목사의 사역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낸 분이 되는 발자취"라고 평가했다. 또한 "말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고 진 영혼을 사랑한 참된 종을 하나님께서 의 면류관으로 위로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추대식에서는 두 차례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입구 목사(전 총회장)는 "교회의 기둥으로서 묵묵히 길을 지킨 한 목사의 헌신은 후대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고, 이병현 목사(등촌제일교회)는 "사람을 남기고, 교회를 남기고, 믿음을 남긴 사역자"라며 깊은 존경을 표했다. 예배는 이영구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성도들은 한덕수 공로목사에게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마음을 전했다. 이번 추대식은 목사로서 평생 헌신의 길을 걸어온 사역자의 삶을 기념하며,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친 사역자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 호남전도지방회주재기자 강일용 목사

성광교회, 강세진 장로 원로 추대식 거행



부천지방회 성광교회(신경수 목사)는 지난 11월 9일 주일 오후 3시에 강세진 장로의 원로장로 추대식을 1,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박병두 목사(목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윤경일 목사(여월동교회)의 기도와 이길로 목사(좋은나무교회)의 성경봉독 후 총회장 홍사진 목사가 딤후 4:7-8절을 근거로 하여 "내 평생 소원 이것 뿐"이란 제목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진 2부 원로장로 추대식은 담임신경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고원영 목사(경안교회)의 추대사 소개, 행복환

갑찰장 김진용 목사(함께하는교회)의 권면, 직전회장 하수경 목사(맑은샘교회)의 축사가 있었으며, 담임목사의 공포로 강세진 장로가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이어 총회장의 메달 증정 및 지방회장과 담임목사의 기념배 증정, 원로장로의 답사, 지방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강세진 원로장로는 1997년 권사 취임, 2004년 장로직임을 받았으며 장로직임 21년 만에 원로장로로 추대되었다. 현재 성광정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부천지방회주재기자 이상수 목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왕하 6:16)

경기남지방회, 목회자 가을야유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송용현 목사)는 교역자들의 목회력 증진과 친교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3일 강원도 춘천에서 가을 야유회를 진행했다. 이번 야유회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참가자들

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바라보며 감사와 힘을 누리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남지방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의 활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제와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남지방회주재기자 박주덕 목사

인원 60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천 송림산 림욕장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국립 생태원과 해양생물 박물관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해양 자원과 바다 숲을 체험했다. 자연 속에서 힐링과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며, 서로 교제하고 친목을 나누는 뜻깊은 하루가 되었다. 충남지방회주재기자 김중화 목사

인천남지방회, 목회자 세미나 개최



인천남지방회(회장 여현성 목사)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서귀포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회 소속 16교회에서 교역자 부부 포함 총 25명이 참여해 영적 여정과 목회사역의 회복, 새로운 비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첫날 숲과 비전의 시간으로 참가자들은 비자림 숲, 월정해변, 돌담예술정원을 차례로 방문하며 자연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힘과 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자연의 고요함 속에서 지난 목회사역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분위

가 형성됐다. 저녁에는 세미나 시간으로 넘어가 "다시 일어나"라는 주제 아래 지방회장 여현성 목사가 강단에 섰다. 그는 AI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강연하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목회 전략과 비전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연과 나눔의 체험으로 시작된 둘째 날은 제주의 대표적 축제인 갈매죽제에 참여해 갈매 따기 체험을 했다. 이어 상화원의 정원을 탐방하며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생명의 질서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나

침빛누리교회, '숲속 작은 음악회' 개최



안양지방회 침빛누리교회(김진도 목사)는 지난 10월 26일(주일) 오전 매송철보산 숲속에서 야외 예배 겸 제8회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교회 이용구 집사와 이미경 권사의 사저에서 세 번째 열린 음악회는 만추의 감성적 보슬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120여 명의 성도와 이웃이 참석하여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예배 후에 열린 1부 음악회는 '찬양제'로 임마누엘 찬양대(지휘 이미경, 반주 조현아의 합창과 소프라노 김예인, 테너 이대형, 바리톤 한상식 등 정상의 음악인들과 상송가수 이지수(상송제이)의 찬양 순서가 이어졌으며, 교회의 색소폰 앙상블 팀이 연주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다. 2부는 열린 음악회로 김예인의 'nella Fantasia', 이대형의 '가을의 노래', 한상식의 'Parlami d'amore Mariu. Bixio(사랑한다 말해주

오'가 숲 속에 울려 퍼졌고, 이틀 트리 오가 'O sole mio'(오 나의 태양)를 부를 때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이어 상송제이가 무대에 올라 C'est si bon(세시봉)과 Non, je ne regrette rien(후회하지 않아)를 부를 때 안개비가 감성을 더욱 자극하여 음악에 흠뻑 젖어 들 수 있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트롯 가수 최상이 전체 분위기를 띄우며 흥겨운 시간으로 이끌었다. 이후 점심 식사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고, 축복권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도 빼놓지 않고 받아 풍성하고 만족한 행사로 마칠 수 있었다. 김형철 장로는 "도시 생활에 지친 성도들이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하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라며 인사의 말씀을 전했다.

충남지방회, 목회자 및 장로 부부 야유회 개최



충남지방회(회장 안을수 목사)는 11월 7일(금) 목회자 부부와 장로님 부부 총

풍경에 감탄하였고, 산행 후에는 카페에서 차와 빵을 나누며 즐거운 담화를 나누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오후 가는 길 이찬영 목사(와우교회)의 레크레이션 진행으로 웃음과 즐거움이 배가 되었고, 한지박물관을 방문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아쉬움 가운데 임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지방회주재기자 김진도 목사